

<신학철, 백기완을 부르다> 전시에 부처

눈(eye)부처와 눈(snow)부처_ 신학철과 백기완

이종률(전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나는 백기완-주재환-신학철-김용태-강요배로 이어지는 백기완 계보다.

1986년 선생을 뵈은 이래 1987년 백본(민중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과 1988년 민중의당, 민미협 활동을 하면서 선생과 가깝게 있었고, 성균관대 명륜당에서 혼례 할 때는 선생이 길눈이를 맡아 주셨다.

“이 보라우 이종률이, 길 가다 허방에 빠지지 말라우.”

늘 자신의 발밑을 잘 살피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선생이 내게 준 주례사였다.

신학철 선생은 1985년 민미협 창립 직후부터 자주 뵈었으니, 그 인연이 40년이 되었다.

1986년 그림마당 ‘민’ 개관 이래, 특히 87년 6월항쟁부터는 거의 매주 만나 술잔을 마주하면서 정세 판단과 미술운동의 향방을 주고받았다.

남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도 선생과 나는 술이 세서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지켰다.

선생이 늘 술값을 계산하셨고, 민미협 살림에 보태라고 수시로 당신의 작품을 내주셨다.

말씀씨는 어눌했으나 거짓을 말하는 법이 없었고, 걱정을 실은 정직한 언어를 구사했다.

90년대 초에는 선생의 작업실에 두어 달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사모님이 늘 도시락 두 개를 준비 해주셨다.

내가 곁에 밀착해 있으니, 선생은 통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다루는 선생의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로 낯설로 구라를 풀거나 씨름기술 폼만 재다가 나는 강요배가 떠난 쓸쓸한 덕은리 작업실로 리턴했다.

나는 선생을 지켜보면서 '청노루 눈을 닮아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선배'라고 생각하였다.

신학철은 눈(eye)부치고 백기완은 눈(snow)부처다.

선량한 사람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투영된 내 모습이 부처의 형태로 드러난다.

신학철의 눈이 그렇다.

내가 혼탁하고 음흉한 사람이라도 말이다.

백기완 선생은 질풍노도와 풍찬노숙의 삶을 살았다.

늘 싸움의 현장에 있었고, 적들과 대면하는 거리에 선 길 위의 인생이었다.

머리카락 휘날리며 사자후를 토하는 불쌘꾼이었다.

그렇기에 선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다 이번에 알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판 앞에서 밤새 가부좌를 튼 채 눈밭을 이고 진 스무 살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선생을 보았다.

희끗한 머리에 모시 적삼을 입고 거리에 앉은 선생의 모습과 눈 맞아 돌부처가 된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평단에서는 조선 미학의 특징으로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기우뚱한 균형, 아해같은 어른을 꼽는다.

신학철 선생의 작품에는 구수한 큰 맛과 기우뚱한 균형의 미학이 있다.

1960년대 말, AG(아방가르드 그룹)에서 격물치지-존재론으로 시작하여 1982년 첫 개인전 한국근현대사에서 선보인 데페이즈망-관계론을 거쳐 만들어낸 확장과 심화다.

신학철의 작품 <한국현대사-갑돌이>, <새참바위>, <누름-자연>의 세계가 구수한 큰 맛이며, <바위고개>, <얼쭈>, <신바람>의 세계가 기우뚱한 균형이다.

백기완의 미학은 '아해같은 어른'이다. 백기완 선생은 아해같이 운다.

자주 울고 잘 운다.

땅에 떨어진 엿을 못 먹게 한다고 부심이가 울고,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옥에 갇혔을 땐 창살을 잡고 호랑이처럼 울었다. 87년 10월 옛 서울고 교정에서 열린 민중 대통령 후보 추대식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출마 바람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워서 울고, 오윤의 그림 앞에서 울고, 이애주의 춤을 보면서 울고, 앞뜰 살구나무가 꽃을 피워도 울고,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누이들을 생각만 해도 울고, 한진중공업 김진숙을 구하러 가는 희망버스 안에서도 울고,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서도 울었다.

백기완 선생은 아해같이 울다가 어른답게 싸웠다.

기룡전자 1,000일 투쟁 현장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분향소에서, 선생은 노동자들을 자식처럼 보듬고 싸웠다.

70년대 모진 고문으로 80kg이 넘는 건장한 몸이 38kg으로 수척해져서도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우고, 80년대 통일문제연구소와 민통련 시절, 전두환 살인정권을 질타하며 고개를 뺏뺏이 들고 싸웠다.

90년대에는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장산곶매, 이십이, 너울네, 새뚝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예술가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독전관이였다.

이십이는 이기연 누이가 잘 그렸고, 너울네는 강요배 형이 잘 그렸고, 새뚝이는 신학철 선생이 잘 그렸다.

1987년 대통령선거 때, 나는 백본 선전국에서 활동했다.

내 왼손 주먹이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림을 그려 백본의 상징으로 썼고, 류연복 형이 주필을 맡아 문영태 형의 작업실에서 그린 백본 유세 걸개그림 <민중의 바다> 기획 제작에 참여했다.

바닷물이 태극 모양으로 갈라치는 파도 장면을 배경으로 김구-장준하-백기완의 얼굴을 전면에 형상화한 수작이었는데, 지금은 그 그림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선전국에서 각종 대선 포스터와 현수막, 깃발을 만들고, 백본 주간신문 <민중시대>에 만평을 그렸다.

백본이 조직되기 이전에 나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세칭 CA그룹) 소속으로 대통령선거 독자후보 프락션을 하려 민미협 사무실 등지를 돌아다녔는데, 문화운동관은 이미 백기완 선생의 지지세가 강했다.

민미협의 주재환, 신학철, 김용태, 문영태, 홍선웅, 김정헌, 최민화, 류연복, 라원식, 최병수와 문화운동관의 이애주, 임진택, 김도연 등이 모두 백기완 선생을 지지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백본이 꾸려졌을 때 실무 국-실장은 주로 노해동, 인민노련 정파가 맡았지만, 명예본부장 이해주, 선거본부장 박용일, 사무총장 최열, 비서실장 김용태, 대변인 김도연, 문화특보 임진택 등 문화운동판과 그 주변 선배들이 백본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87년 12월 5일, 12일 대학로 유세장에는 각각 20만 명의 군중들이 집결했다.

혜화동 로터리에서 종로 5가 사거리까지 들어찬 군중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서울대병원 앞 가로수에는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민중의 바다>를 비롯한 걸개그림과 깃발그림, 광주학살주범 처단 등을 담은 현수막, 밥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오방기 수천 개가 대학로를 수놓았다.

무대 사회를 맡은 임진택 형은 '급격한 우회전은 승객의 머리를 좌경화시킨다'며 바람을 잡았고, 백선생은 찬바람에 검정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군중을 휘어잡았다.

나는 최병수가 쌓은 유세 연단에 올라 펄럭이는 깃발과 군중의 열기에 벅찬 가슴을 진정하지 못해 눈물이 났다.

”가자 백기완과 함께, 민중의 시대로”

군중의 함성이 대학로-동숭동-종로 일대를 뒤덮었다.

유세 현장에서 돌린 모금함을 사무실에서 열었더니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메모 편지, 반지, 목걸이까지 쏟아져 나왔다.

1억 가까운 돈을 세느라 총무국의 최병현이 사흘이나 고생했다.

모금된 돈은 선배들의 전월세 보증금-기탁금과 보태어 선관위 등록금, 선전물 제작비로 썼다.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직된 2차 백본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6월항쟁으로 열린 87년 대선은 김영삼-김대중 양김의 분열을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단일화를 강제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92년 선거는 상대적으로 그 명분이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선 6개월 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린 재야 정치집회에서, 제 운동 진영의 총의와 직접투표를 통한 민중 대통령후보 선출 프로세스를 결의한 바 있었다.

그 와중에 프로세스 추진의 주역 강기종 선배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민중당의 장기표 선배도 이선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92년 백본 출정식을 겸한 기금마련 전시회가 열린 그림마당 민에서 이미 소주 세 병을 마신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과 테이블을 붙잡고 울었다.

김상현, 이철 의원과 권인숙 씨 등이 참여한 자리였고, 백선생님의 언짢아하는 눈길이 느껴졌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홍선웅 형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나는 서러워서 그림마당 민 앞 골목에서 또 울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으로 난감했다.

대망의 대선 출정식 자리에 내가 재를 뿌렸으니 말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나는 뺨 맞을 각오를 하고 진관외동 기자촌 선생님 댁을 방문하였다.

정월 초하루 세배를 올리고 눈치를 보면서 앉았더니, 의외로 선생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알고 보니 선생의 아들 백일씨가 연말에 아들을 낳아 손주를

안겨드렸다는 것이다.
십 년 감수한 93년 정초였다.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선생께 죄송하고 잘못된 일인 두 가지가 아니다.

94년 신혼여행지에서 보낸 제주 옥돔도 식구 수를 생각하면 한 스무 마리는 보냈어야 하는데 달랑 서너 마리밖에 보내드리지 못했고, 통일마당집 한돌쌓기 등 돈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는데도 간간이 겨우 10만원 쯤 밖에 보내드리지 못한 점도 제제하게 여겨져서 부끄럽다.

선생은 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땅찮게 생각했다.

혁명하는 새뚝이가 되겠더니 눈 먼 월급쟁이가 되었으니까. 민주화운동이 다 끝난 마냥, 기억 중심의 민기사를 만든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고, 6월항쟁 기념식 등 이런저런 행사에도 발걸음을 잘 하지 않으셨다.

민기사가 만든 민주화운동 사진집에 당신의 활동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점도 섭섭하셨을 것이다.

2021년 2월, 민기사를 퇴직하자마자 선생이 돌아가셨다.

황천길에는 주막집도 없다던데 그날 밤에는 누구 집에서 쉬었다 가셨는지 모르겠다.

저승에서 장자, 이백, 삼천갑자 동방삭, 오윤, 김용태 형과 복사꽃 그늘 아래 술판이라도 자주 벌이시는지 모르겠다.

술이 모자라면 이태백을 심부름 보내고, 뗏비나리 읊고 춤추며 놀다가 해가 지면 "이놈의 해야, 어른들이 노는데 니놈이 감히 떨어져" 호통을 칠 것이다.

선생을 마석모란공원에 묻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노을이 장엄했다.

불교 미학으로 말하자면, 선생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였다.

신학철이 동학의 미학에 빠졌다.

90년대 역작 <한국근대사-금강>을 그릴 무렵부터 동학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근년 들어 공부에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지난해 선생의 목천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보니, 책장에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동학 책이 여럿 꽂혀 있었다.

술자리에서도 동학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동경대전 재미중춘판과 경주판을 찍은 천안-목천 사람들의 동학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셨다.

백기완 선생이 동학의 ‘제폭구민’, ‘광제창생’의 테제에 가깝다면, 신학철 선생은 ‘사인여천’, ‘향아설위’에 더 마음이 닿아 있다.

사인여천은 일하는 사람-민중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말이겠고, 향아설위는 내 안에 천지가 다 들었으니 나 스스로를 섬기라는 가르침이겠다.

신학철 선생이 80년대 초부터 천착하기 시작한 작업 ‘한국근대사-한국현대사’ 시리즈가 모두 사인여천과 향아설위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작 시리즈 어디에도 신을 숭배하거나 민중을 대상화하는 향백설위의 장면은 없다.

일하고 싸우고 아끼는 사람들이 늘 중심이고, 그 안의 내가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를 헤쳐나온 주인공-향아설위로 표현된

다.

신학철의 작품은 그들이 있고, 민중의 귀기(귀신이 나타날 것처럼 무시무시한 기운)가 있고, 이를 아우르고 만들어낸 흥과 멋의 세계, 흰그늘의 미학이 스며있다.

몇 년 전, 어느 후배가 신학철의 미술사적 위치는 어떤가 묻길래, '현실과 발언'을 다 보태어 놓은 것과 같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오운의 신기와 풍류, 임옥상의 모던, 강요배의 서사 모두를 신학철은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선생이 돌아가실 때, 내가 혹 살아 카피를 쓴다면 “근현대사를 가로지른 동학의 겹눈” 이라고 하겠다.

백기완, 신학철 두 선생의 우정은 도저했다.

신학철이 87년 대선에서 백기완을 지지하고, 민미협 통일전 모내기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온 신학철을 백기완이 송추계곡에서 개고기를 먹인 이래(사실, 신학철은 늘 불공을 드리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개고기를 먹지 못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두 분의 우정은 웅숭깊은 길동무의 여정으로 이어졌다.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투쟁 현장에서, 그림꾼 주재환의 전시장에서, 또는 병치레로 입맛을 잃은 백선생님의 냉면모임에서 두 사람은 언제나 동행했다.

백기완과 신학철은 ‘딱 한발떼기’ 미학의 사제지간이었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는 길 위의 도반이었다. 그 길에서 백기완-신학철의 미학이 싹트고 ‘부심이의 엄마 생각’, ‘하얀종이배’ 연작으로, ‘갑돌이의 노랑 목젓’ 으

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콜라보는 <신학철, 백기완을 부르다>는 이름으로
지금 대학로 백기완마당집 기획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신학철은 눈(eye)부처고 백기완은 눈(snow)부처다.

2025. 5. 24..